



최근 미국 실업률 추세와 향후 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김평식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캠퍼스 경제학 박사과정)

■ 배경

미국 경제는 2018년 9월 한 달간 13만 4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인 3.7%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미국 동부 레저산업에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플로렌스에도 불구하고, 전문사업 서비스(5만 4천 명), 운송 및 보관 서비스(2만 4천 명), 건설업(2만 3천 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큰 폭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났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추세는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며, 2018년 12월에도 31만 2천 개의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낮은 실업률(3.9%)을 기록했다. 이 역시 연말 기대치보다 양호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2018년 제조업 일자리만 28만 4천 개 증가하며, 2017년(20만 7천 개)을 크게 뛰어 넘었다. 고무적인 연말 실업률 결과가 나온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위대한 일자리 수치가 발표되었다”고 하였으며, 미국 노동통계국 장관(United States Secretary of Labor) Alex Acosta 역시 최근 8개월간 실업률은 4% 이하였고, 유색인종, 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실업률 역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2018년 미국 노동시장은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업률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와 함께 현 경제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대표적으로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자인 Arthur Okun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를 산출하고, 이를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정도로 해석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실업률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표 1> 2018년 12월 실업률 성별, 교육수준별 전년대비 비교

		2017년 12월	2018년 12월
성별	남성(20세 이상)	3.8	3.6
	여성(20세 이상)	3.7	3.5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6.3	5.8
	고졸	4.2	3.8
	대졸	3.6	3.3
	대졸이상	2.1	2.1

주 : * 교육수준별 비교는 2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됨.

자료 : U.S. BLS,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9.

낮아지며 '완전실업률(한 경제에 모든 자원이 활용되는 상태에서의 실업률)'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최근 10년간 미국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추세에 대하여 전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낮은 실업률에 대한 원인

미국 실업률 추세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불법 이민자 감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미 경제성장률 상승 등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불법 이민자 방지를 강화하는 트럼프 정권의 정책이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 감소에 효과적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기존 불법 이민자들이 차지했던 단순 노동시장을 아직 직장 경력이 적은 청년층이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 취업자 증가를 야기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하지만 기존 불법 이민자 숫자를 측정하기 매우 어렵기에 본 주장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보통 이민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트럼프 정권의 이민정책 효과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처럼 저조한 수준의 실업률을 특정 정권의 일시적인 정책 탓으로 모두 해석하기는 어렵다.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실업률 10%를 기록했던 미국 노동시장에서 최근 1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

임 전인 2016년에도 실업률은 낮은 수준(4.7%)을 기록하며 괜찮은 일자리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부분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최근 10년간의 모든 추세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표 2> 최근 10년간 미국 실업률 추세(12월 기준)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업률	10.0	9.4	8.5	7.8	6.7	5.6	5.0	4.7	4.1	3.9

자료 : U.S. BLS,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9.

현재의 낮은 실업률은 미국 노동시장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아지며 총 노동인구 자체가 증가한 것에도 영향을 받았다. 실업률은 경제의 활용되지 않은 인적자원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총노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총노동 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한 것으로, 이 중 실업자는 일할 의지는 있으나 현재 일하지 않는 근로자를 뜻한다. 그러므로 취업자의 증가로 총노동인구가 늘거나, 실업자가 감소할 경우 실업률은 산술적으로 줄어든다. 실제로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최근 취업자 증가의 상당수가 5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미국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 인구가 23.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13.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간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하면서 실업률 자체를 낮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연령별 취업자 전망치

(단위 : 백만 명, %)

	2000	2007	2017	2027	2037
55세 미만(A)	119.2	120.0	118.5	128.8	136.2
55세 이상(B)	18.4	26.2	35.5	40	40
55세 이상 비중(A/A+B)	13.4	17.9	23.1	23.7	22.8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2018.1.15.

실업률은 경기변동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이 변화하며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그렇기에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 역의 관계에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실업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먼저, 과거 실업률 추세를 보면, 금융위기(2008년), IT버블 붕괴(2004년), 오일쇼크(1983년) 등 경기침체기마다 실업률은 어김없이 상승하였다. 최근 미국 경기가 긍정적이라는 지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며 기업에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며, 이에 힘입어 실질임금도 상승하고 있다. RSM 국제 컨설팅 그룹 수석 경제학자 Joseph Brusuelas에 따르면 이처럼 낮은 수준의 실업률은 2018년 임금상승률이 전년 대비 3.2%로 견조한 수준을 기록하여, 기존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인들이 일터로 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Ball State University의 Michael Hicks 교수 역시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은 기존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일하던 웹사이트 제작자, 집 수리공 등을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일자리로 이끄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임금상승은 기업들이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유인책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Michael Hicks 교수는 사용자들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임금상승은 그 명확한 증거라고 했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은 2009년 -2.78%를 기록한 이후 최근 2017년까지 2% 안팎으로 완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최근 10년 미국 연간 경제성장률 추세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2.78	2.53	1.60	2.22	1.68	2.57	2.86	1.49	2.3

자료 : U.S. BLS,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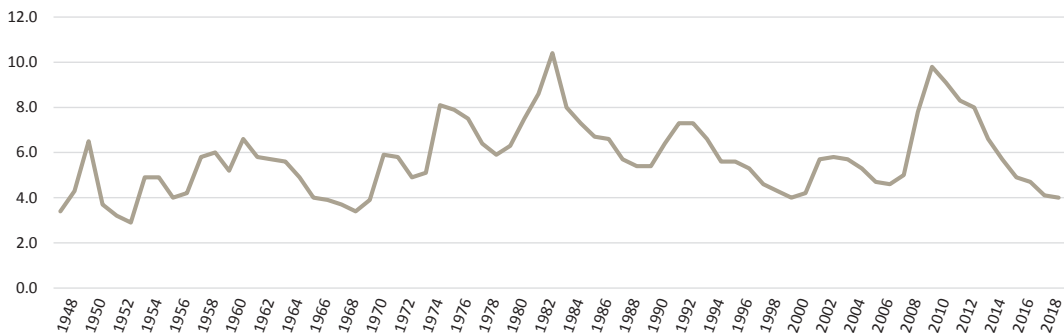
■ 향후 전망

차기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로 임명된 John Carroll Williams 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골디락스(Goldilocks) 경제 국면'이라고 말했다. 골디락스

는 경기변동이 크게 없으면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성장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보았듯이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실업률이 앞으로도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 또한 전체 취업자 중 비중 55세 이상 인구는 2027년 23.7%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에, 향후 십여 년간 낮은 실업률이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제성장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경우, 경기순환에 따라 경기가 과열(낮은 실업률)되었을 경우, 다시 경기침체(높은 실업률)에 돌입한다. [그림 1]에서 보듯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실업률이 낮아졌지만, 경기불안 요인으로 인해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고성장, 저물가와 더불어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현상을 두고 ‘신경제(New Economy)’라고 명명된 적이 있다. 당시 10여 년 정도 미국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는 IT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경기불황이 와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해 10%를 기록하며 미국경제 역시 경기순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림 1] 1948~2019년 실업률 추이(1월 기준)



지금도 경기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상당히 있다. Hiring Lab의 Martha Gimbel은 미국 주식시장이 불확실성하에 있고, 노동시장 호조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던 경기호황 추세가 꺾여 실업률이 재차 상승할 수도 있다. **KLI**

참고문헌

- Eric Sims(2019), “The Real Business Cycle Model”, https://www3.nd.edu/~esims1/rbc_notes_2017.pdf
- The NPR(2018.10.5), “U.S. Unemployment Rate Drops To 3.7 Percent, Lowest In Nearly 50 Years”, <https://www.npr.org/2018/10/05/654417887/u-s-unemployment-rate-drops-to-3-7-percent-lowest-in-nearly-50-years>
- The wall street journal(2019.1.16), “Can Federal Employees Get Unemployment During Shutdown? It Depends”, <https://www.wsj.com/articles/furloughed-federal-employees-may-seek-unemployment-labor-department-says-11547651066>
- The Washington Post(2019.1.4), “U.S. economy added 312,000 jobs in December and wage growth gained steam, marking a strong finish to 2018”,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19/01/04/saw-strong-job-growth-looks-riskier/?noredirect=on&utm_term=.4c537a9181ed
- The White House(2018.10.5), “America’s Unemployment Rate Falls to Its Lowest Level in Almost 50 Years”,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americas-unemployment-rate-falls-lowest-level-almost-50-years/>
- The Forbes(2019.2.8), “The Baby Boomers Are Doing Just That. Booming”, <https://www.forbes.com/sites/aparnamathur/2019/02/08/the-baby-boomers-are-doing-just-that-booming/#61c2158520c4>
- Yellen, Janet L.(2017), “Inflation, Uncertainty and Monetary Policy,” Speech at the 59th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Cleveland, Ohio.
- Krause, Eleanor and Sawhill, Isabel(2017), “What We Know and Don’t Know About Declin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A Review,” Brookings Institution.
- Vandenbroucke, Guillaume(2017), “Boomers Have Played a Role in Changes in Productivity,” *The Regional Economist* 25(4).